


# 동양인 혐오범죄 급증,,어떻게 대응하나?

 [radioseoul1650.com/local/엘에이시-의회-팬더믹-기간동안-동양인-혐오범죄-폭/](http://radioseoul1650.com/local/엘에이시-의회-팬더믹-기간동안-동양인-혐오범죄-폭/)

By 이 은

10월 29, 2020

**‘코로나19’ 확진자수·관련정보**

[자세히 보기](#)

코로나 팬더믹속에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, 오늘 (어제) 엘에이 정계 지도자들이 늘어나는 동양인 혐오 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을 도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

이 은 기잡니다.

29일 엘에이 시장실과 데이빗 류 엘에이 시의원, kacie 스트레티지, 엘에이 총영사관, 일본 총영사관의 공

동 주최로 열린 웨비나에서 에릭 가세티 엘에이 시장과 데이빗 류 엘에이 시의원, 엘에이 인권당국 카프리 매독스 전무이사등이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 펜더믹 기간동안 늘어난 동양인 혐오범죄 예방책 마련을 토의했습니다.

데이빗 류 시의원은 “Stop AAPI Hate” 에 지난 3월 19일 부터 8월5일 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동양인 혐오 범죄 신고건수는 2,583건으로 펜더믹 기간동안 폭증했으며 이중 8월 한달에만 전체 신고건수의 9 퍼센트 해당되는 240건이 폭력을 동반한 혐오범죄 신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.

이런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10.4 퍼센트 증가한것이며, 2016년에 비해서는 40.6 퍼센트나 증가한 수칩니

다.

데이빗 류 시의원입니다.

(컷)

이날 웨비나에서는 동양인들이 혐오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한지도 소개됐습니다.

혐오범죄 피해자이자 동양인 인권운동가인 홍 리씨는 한인 1세를 비롯한 영어가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엘에이 경찰국에 “아시안 테스크포스”가 마련되어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모국어로 신고할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.

홍 리씨입니다.

(컷)

혐오 범죄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홍리씨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피해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 영상은 삽시간에 네티즌들에 공유되면서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파악해 체포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.

혐오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[stopaaapihate.org](http://stopaaapihate.org)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이 은 기자

Categories: 2. 로컬/캘리포니아

Tagged as: covid, pick